

# 불교 유산 보고 '나테슈와르' 서 사리탑 발굴

(寶庫)

## 방글라데시-중국 연합 발굴단, 16개 불교 사리탑 발견

방글라데시에 위치한 불교유적지 '나테슈와르(Nateshwar)' 발굴단이 불교 사리탑 16개를 대거 발견했다.

'나테슈와르'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Dhaka)로부터 남방 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불교유적지다. 2010년 방글라데시 고고학계에 의해 발견돼 2014년부터 중국과 방글라데시가 연합 발굴 작업을 펼쳐왔다. 다량의 불교유적이 발견되며 '고고학적 보물'로 평가되고 있다.

'The daily Star'는 1월 31일 "나테슈와르 유적지에서 약 1,000년 된 불교 사리탑 16개가 발굴됐다"며 "각각의 사리탑은 십자·고고학적으로 다양한 형태와 가치를 띠고 있다"고 보도했다.

16개 사리탑은 길이 16m, 깊이 3.5m 규모의 벽돌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형태는 마치 전체가 하나의 홀(Hall)을 이룬 듯 연결돼 있다. 현재 발굴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와 형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The daily Star'는 "16개 사리탑은 크게 4개의 거대한 홀로 나뉘어 전체적으로 십(十)자 형태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구조를 설계했던 당대 사람들의 경이로운 능력과 경험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

고 언급했다.

특히 자한기르나가르(Jahangirnagar) 대학 무스타피(Mustafizur) 교수는 십(十)자 형태에 대해 "불교 철학이 사리탑 구조에 나타나 있다"며 "사리탑 중 8각형 구조 사리탑은 불교의 8가지 거룩한 진인인 '팔정도(八正道)'를 상징한다"고 다른 차원의 해석을 제시했다.

### 2015년 발굴된 불교 유적지서

#### 1000년 전 제작 추정

#### "불교 역사에 획긋는 발견"

#### 4개 구획 십(十)자 형태 구성

#### "8각형 구조는 '팔정도' 상징"

이번 발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계 불교 유적에 획긋는 발견"이라면서 "1,000여 년 전 불교문명의 번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추가적인 발굴이 진행되면 더 많은 유물들이 발견될 것"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발굴단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누 울알람 레닌(Nuh-ul-Alam Lenin) 씨는 "불교 사리탑들이 심미학적으로도 우수



방글라데시에 위치한 불교유적지 '나테슈와르(Nateshwar)'에서 1,000년 된 불교 사리탑 16개가 대거 출토됐다. 사진출처=TheDailyStar

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관광객들을 크게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국 고고학계에서도 조사 작업 참여뿐만 아니라 이곳에 박물관, 관광시설 등 유지하는 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2015년에는 이 유적지서 1,300년 전 형성된 불교 도시가 발견돼 큰 화제를 낳았다. 당시 배수로, 도로 등 다양한 구조물이 발굴단에 의해 출토됐다.

도로는 길이 30m 폭 2m로, 북쪽에서 동서쪽으로 측면 도로도 위치해 있다. 수직·수평 구조로 벽돌을 배치한 이 도로는 당대 도목공학 기술을 반영한 것

로 보여진다.

특히 81㎡의 불교 사원도 중요한 발견으로 꼽히고 있다. 'The daily Star'는 "사원 벽을 둘러싼 벽돌 디자인은 방글라데시 사원 건축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가치를 지녔다"고 평가했다.

이후 발굴단은 미국 베타 실험실에서 출토된 유물 26개에 대한 탄소화학적 분석을 진행했으며, 이 유적지가 1,100년 이상 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이 유적지는 780~950년, 950~1223년에 걸쳐 2차례 인간 생활터전이 조성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박이형 기자 pak502482@hyunbul.com

## 태국불교 최고지도자 후보 '벤츠 수집' 파문

승왕 임명절차 앞두고 경찰조사 들어감

태국 불교계 최고 지도자인 승왕(僧王) 후보로 지명된 노승이 고가의 벤츠를 수집해 전시하는 등 자질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태국 현지 언론 및 싱가포르 언론인 '채널뉴스아시아'에 따르면 1월 24일(현지시간) "태국 총리실은 승왕 후보로 지목된 랏차망갈라찬이 최고 지도자로 자질이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승인 절차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90세인 랏차망갈라찬은 최고 등급의 성직인 '솨뎃 프라 마하'에 오른 고승으로, 지난 2013년 19대 승왕인 안나생원이 임직된 뒤 승왕 대행을 맡아 왔다.

그는 최근 원로회의에서 20대 승왕 후보로 지목돼 태국 국왕의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었다.

그러나 태국 군사정권은 그에 대한 승왕 승인을 지연했다. 랏차망갈라찬이 주지로 있던 절에서 벤츠 등 고가의 수입 민터지 차량이 여러 대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차량은 신도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되다가 하면 완제품 형태가 아닌 부품 형태로 수입돼 현지에서 조립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세금 탈루 의혹까지 받게 됐다.

태국 경찰청 특별조사국(DSI)은 랏차망갈라찬이 수입 차량을 보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착수했으며, 1달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승왕 후보의 자질 부족 문제는 인구 95% 이상이 불교도인 태국 사회에 긴장을 초래했다.

일부 반대파들은 랏차망갈라찬이 후계와 관련한 친필 서한을 조작했다거나, 불교 계율을 위반해 성직을 박탈해야 할 동료들 감쌌던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반대파 중단인 루앙 푸 붓다 이사라 스님은 태국 정부에 "세계 각지의 차를 수집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일이며 승왕 자격에 맞지 않다"며 랏차망갈라찬의 승왕 후보 추천을 취소해달라고 탄원서를 냈다.

또한 이사라 스님은 "승왕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30만 태국 승려들을 대변하는 중적인 동시에 태국 사회와 불교에 도덕적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다. 만약 승왕이 탐욕과 야망으로 가득했다면 그는 아이들과 불자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랏차망갈라찬을 지지자들은 기소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한다. 태국 최대 불교대학교인 마하출라롱콘라자위디얌라야 대학교(MCU, Mahachulalongkornrajavidyalaya University) 부학장인 프라 메티 담마잔은 "이번 사건은 태국 불교 종파들이 서로를 파괴하려는 정치적 전술에 불과하다. 그런 식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며

"만약 태국 정부가 이번 문제로 승왕 취소를 해결한다면 승가집단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랏차망갈라찬에 대한 공격은 태국 승가와 태국 내 기타 종단의 불화를 일으키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랏차망갈라찬은 담마까야 사찰 주지인 프라 담마차요 스님과 그의 유대관계가 맺고 있어 태국 보수주의자들의 반발이 더욱 심하다.

담마까야 사원은 카르마를 상업화해 구원을 위한 기부를 강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주지 담마차요 스님은 2012년 횡령의혹을 비롯해 그가 명상 중 스티브 잡스의 사후 모습을 봤다고 주장해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다.

태국 사회비평가인 술라 시바라사는 "많은 사람들이 랏차망갈라찬 승왕 후보 지명에 반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담마까야 사원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라며 "담마까야 사원은 불교교리를 전파하기 보단 자본주의와 소비시장주의를 통해 포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승왕 임명절차 담당 총리실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랏차망갈라찬에 대한 승왕직 승인 절차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에게 후보자 명단을 보내기에 앞서 경찰 수사 결과를 충실히 수집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 목조관음보살좌상, 보스턴 미술관으로 돌아가



900년 전 제작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이 17년간의 공백을 마치고 미국 보스턴 미술관으로 돌아간다. 사진출처=뉴욕타임즈(NewYorkTimes)

### 17년간 분석 마치고 2월 6일부터 전시

900년 전 제작된 목조관음보살좌상이 17년간의 공백을 마치고 미국 보스턴 미술관으로 돌아간다.

'뉴욕타임즈'는 1월 28일(현지시간) "목조관음보살좌상이 정밀한 분석과 수리 및 도금 작업을 거치고, 17년 만에 제자리인 보스턴 미술관으로 돌아간다"고 보도했다.

목조관음보살좌상은 900년 전 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는 6피트(약 182cm)의 이 보살상은 편안한 자세로 한 다리는 물가에 발을 담그려는 듯한 자세로 앉아 있으며, 유리로 된 눈은 아래를 지긋이 내려다보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보살상은 물가에 반사된 달을 응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보살상은 머리에 관을 쓰고 술이 달린 장식과 비즈 보석 등으로 꾸며져 있다.

뒷부분에는 구멍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귀고리도 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마 가운데 보석 장식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플라스틱 재질의 이 보석은 1950년 경 사라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분석은 박물관 미술품 보존전문가인 에베게일 하이킨이 맡았다. 하이킨은 목조관음상의 얇게 떨어져 나간 조각들을 다시 붙이고, 곤충이 갉아먹은 곳이나 못 자국 및 몸통과 팔다리가 연결되는 부분들을 면밀히 조사했다. 보살상을 갉아먹은 곤충의 종류가 밝혀지면 추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현존하는 목조관음보살상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캔자스시에 있는 넬슨아트 박물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국립 레이크스 미술관과 영국의 빅토리아 앤 알버트 미술

관 등이 공개된 전부터.

보스턴 미술관에 있는 목조관음보살좌상은 1920년 북중국에서 온 것으로 이전에 어느 사찰에 있던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관음보살상은 2개의 불상과 함께 매입됐으며, 향후 나머지 2개 불상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이 불상 표면에는 나무를 다시 덧칠 했던 날짜를 알리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중국미술 담당 큐레이터인 낸시 베를리너는 "아마 이 목조관음보살좌상 후원자는 새로 덧칠을 하면서 선업 쌓기를 기원한 것 같다"며 "이 불상은 허영심보다는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는 것이 특징이다. 얼굴 표정에는 연민심이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스턴 미술관은 이 불상 및 분석 당시 촬영한 엑스레이, 불상 내부를 스캔한 사진 등을 2월 6일부터 전시하고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태국 불교계 최고 지도자인 승왕(僧王) 후보로 지명된 노승이 고가의 벤츠를 수집해 전시하는 등 자질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사진출처=채널뉴스아시아

꿈바위 시대가 왔습니다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 자가용 운전자를 위한 무사고 안전 기도.
- 조상숭배실천회, 세종대왕선양회 : 전국적으로 지회를 조직하오니 동참 바랍니다.
- 포교활동 하실 분, 공양주 하실 분.
- 지역사회에서 큰 활동 하실분 지도자 양성.
- 꿈바위에서 크게 활동하실 화주보살님 모집입니다.
- 꿈바위에서는 각종 경전불사를 하오니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말 천수경, 문수보살예찬문, 보현행원품,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경, 아미타경, 금강경, 약사여래경, 대불정능엄신주, 성철큰스님 불탄법어, 신년법어, 가천도, 대학 기타
- 창업 개업 하실 분 상호, 좋은 이름 작명해 드립니다.
- 대학입시 합격 기도 상담. (지금 상담이 중요함)
- 치매 예방, 암 예방, 중풍 예방, 비만, 변비, 우울증, 코골기, 스트레스, 가족 갈등, 상담과 특별지도 및 기도.
- 가정 방문, 회사 방문, 조상 산소, 상담과 기도해 드립니다.

● 태아영가 조상영가 천도 ● 부산 - 일본 오사카(선상천도)

확실한 천도가 됩니다.  
선상에서 천도하며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참여함.

꿈바위불교교육원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68-1 H·P 010-6789-5008

元曉 神話 論述誤謬  
1,400年만에 밝힌다  
Critical Essay 評論

원효기신론소에 依據하여 한역경전오류를 그대로 인용 記述(기술)하여 대부분 한문불교용어를 직역하여 기술하였다. 예컨대 薰習(훈습)을 世間衣服(세간의복) 혹은 香氣(향기)라고 기술하였다. 훈습은 妄心이고 現境界이다. 즉 正각실체를 방해하는 작용이다.

如來藏(여래장) 思想(사상)에서 淸淨心如來藏(청정심여래장)과 識藏(식장) 如來藏(여래장) 즉 Alaya 識(아라야)를 혼동하여 기술하고 있다. 元曉가 혼동 혹은 오류를 汎(범)한 부분을 29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評論하였다. 漢字佛敎用語 5,000字를 梵語(범어)와 漢文으로 정리하고 論述하여 評論하였다.

※ 目次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 가격 150,000원
- 저자 직접 구입 : 강상원 010-9134-4505 / 010-5213-6677
- 교보문고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朝鮮明倫館學術院

현대불교신문  
구독 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울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힘찬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